

한국고대 질병과 신라의학

2017. 10. 19.

이현숙 *

1. 의학사로 고대사회 읽기
2. 한반도 특산 약재로 본 고대 질병
(1) 고조선 (2)고구려 (3)백제 (4)신라
3. 한국의학사 속의 신라 의학 : 한국 중세 의학의 탄생

1. 의학사로 한국 고대사회 읽기

인류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인류 탄생 이래 질병으로 고통받아 왔다. 유사 이래 인간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은 의학 발달의 역사이기도 하다. 최초의 의사는 무당이었다. 무당은 다양한 제례의식과 간단한 약물을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였는데, 불교의 전래와 함께 승려 의사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인도에서 유래한 베다의학과 중국의학이 결합된 불교 의학을 구사하였다. 불경에 나타난 의학 관련 자료를 불교 의학적인 이해 뿐 아니라 이미 중국의학의 음양 오행과 오장 육부설로 해석하였던 원효의 사례로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삼국 가운데 고구려가 가장 먼저 의학이 발달하여, 고구려의 의료인들은 백제와 신라 일본 뿐 아니라 중국에까지 가서 활약하였다. 특히 고구려는 침법이 발달하였는데, 인근 국가에서 와서 배워갈 정도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중국의 한의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전래하는 경험방 뿐 아니라 중국 의학을 겸비하는 전문 의사 집단이 나타났다. 한국 고대 사회에서 중국의 의학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양성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였기에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가능하였다. 한문에 해박한 지식인 역시 의학에 조예를 가진 집단이었다. 의료 관료와 지식인들이 고대 의학의 발전을 견인하였던 주체였다.

의학사적인 시각으로 한국고대사를 읽을 때, 기존에 알 수 없었던 부분을 새롭게 파악

* 연세대 의학사연구소 연구교수.

- 저서 :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공저), 2016, 역사공간 ; 『한국의학사』(공저), 2012, 의료정책연구소, 『한국전염병사』(공저), 2009, 군자출판사 외 다수.
- 연구논문 : 「고려 불교의학의 한 단면 : 승려의 질병과 치료」 『한국중세사연구』 48, 2017 ; 「화분 분석으로 본 신라 통일기의 소나무」 『생태환경과 역사』 2, 2016 ; 「한국고대의 본초 - 고조선·백제·신라를 중심으로 -」 『신라사학보』 33, 2015 ; 「고구려의 의약 교류」, 『한국고대사연구』 68, 2013 외 다수.

할 수 있다. 특히 가장 정치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의 역병 자료를 통해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새롭게 알 수 있다.

한국 고대에서 역병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종래에 알려진 이상 기후뿐 아니라 주거지의 이동, 외래인의 대거 유입을 초래하는 새로운 종교의 수용과 전쟁 등이 매우 중요하였다. 또한 역병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을 때, 새로운 종교였던 불교는 이에 대한 색다른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역병의 희생자가 왕을 비롯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을 경우, 정치적 변화까지 초래하였다. 즉 가장 세련되고 화려하였던 문화를 이룩한 백제가 것처럼 쉽게 나당 연합군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자왕의 폭정을 비롯하여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수많은 요인이 복합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6세기 이후 백제는 남조에서 유행하던 한 집안이 멸실될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이 들어와 황행하였다. 이처럼 인구가 대폭 격감하면, 이를 회복하는데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남조에서 유입된 역병이 백제 사회에 준 타격은 나당연합군의 타격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백제는 이미 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병들고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이다.²⁾

한편 신라 하대에 내물왕계가 확고하게 왕권을 유지하는데 일조한 것은 바로 두창으로 추정되는 역병이었다. 비록 두창이 내물왕계 출신인 선덕왕 김양상의 목숨을 앗아가기는 하였으나, 두창을 피해 왕궁에서 200리나 떨어진 곳에서 지내던 무열왕계 김주원과 달리 내물왕계 출신인 김경신은 도리어 두창이 쓸고 간 왕궁 근처에서 기회를 엿보다 재빨리 왕위를 계승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의학사 또는 질병사적인 접근은 한국고대 사회의 새로운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고대 의학서를 고대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료가 많지 않은 고대사 분야로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본초서에는 한반도산 약재들이 일찍부터 정리되어 왔다. 따라서 고조선과 부여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특산 약재를 살펴보면, 그 지역의 질병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본초서에 남아있는 한반도산 약재의 효능은 한반도에서 전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산 약재는 11세기말에 송나라 당신미(唐愼微)가 지은 『경사증류비급본초(經史證類備急本草)』(『증류본초』라고 약칭함)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증류본초』는 총 1558종의 약물을 기재하고 있으며, 매 약물마다 그림을 붙여 어떠한 형태의 것인지 이해를 돕고 있다.³⁾ 명대 李時珍(1518~1593)의 『本草綱目』이 나오기까지 500 여년동안 본초학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누렸는데, 송대 약물학의 집대성이라고 할 만하다.

『증류본초』에는 남조 양나라의 어의 도홍경(陶弘景)의 『명의별록(名醫別錄)』이 수록되

2) 이렇게 볼 때, 의자왕의 지나친 신라공격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즉 감소한 인구를 단기간 회복하기 위해 신라의 영토와 인구가 필사적으로 필요했던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3) 안상우, 「본초서의 계통과 본초학 발전사」 『한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11권 1호, 2005, 한국한의학연구원, 25-26쪽. 특히 1058년 송 정부에서 편찬한 『圖經本草』와 1061년에 편찬된 『嘉祐補注神農本草經』를 하나로 묶은 뒤, 불교서적과 道藏에 나오는 약물학 지식과 『本草拾遺』, 『食療本草』 등에 처음 나오는 약물들 및 민간의 경험단방까지 아우르고 있다고 한다.

어 있다. 여기에 채록된 한반도산 약물은 한반도에서만 생산되는 특산 약재들로서 우리 조상들의 치유 경험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중국 본초서에 기재된 한반도산 특산 약물을 통해 역으로 고대 한반도의 질병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리를 통해 한반도에서 문제가 되었던 질병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라의 통일로 인해 삼국의 의약지식은 신라에 의해 총결집되었다. 따라서 본초서를 통해본 삼국의 의약지식들이 신라 통일기에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2. 한반도 특산 약재로 본 한국 고대의 질병

(1) 고조선

① 토사자 : ... 기력을 좋게 하고 체중을 늘린다. 즙을 내어 먹으면 얼굴의 주근깨가 없어지고 기육이 보양되며 음기가 세지고 근골이 튼튼해진다. 또한 음경이 차가워지면서 정액이 저절로 흐르며 소변을 찢끔찢끔 자주 누는 것과 입이 마르면서 쓰고 피가 차서 穢이 생긴 것 등도 치료한다. 장기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몸이 거뜬해지며 오래 산다. 일명 토로, 토루, 당몽, 옥녀, 적강, 토루라고도 한다. 조선의 개울가나 못가, 들에서 자라는데 덩굴이 다른 풀이나 나무위로 뻗어 오른다. 색이 누렇고 가는 것은 적강이고 색이 연하고 큰 것은 토루이다. 9월에 열매를 따서 햇볕에 말린다.⁴⁾

② 노래기 : 맛은 시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있다. 뱃속이 크게 단단한 증상을 주로 치료하는데, 적취(積聚)·식육(息肉)·악창(惡瘡)·백독(白禿)을 없애고 한열과 윗배가 더부룩하며 아픈 병증과 겨드랑이 아래가 그득한 것을 고친다. 일명 백죽 또는 마축이라고도 하며 현토의 내와 골짜기에서 난다.⁵⁾

(2) 고구려

① 금가루 : 도은거가 이르기를, “물 속 모래에서 나는 것으로 가루를 만들어 복용하는데 나쁜 기운을 막지만 독이 있다. 체련을 하지 않고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건평(建平)과 진안(晉安)에 금사(金砂)가 있어 광석 중에 있다. 돌을 태우고 체련해서 갈아도

4)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권6, 草部 上品之上, “菟絲子 … 主續絕傷 補不足 益氣力 肥健 汁去面黴 養肌 強陰 堅筋骨 主莖中寒 精自出 溺有餘瀝 口苦燥渴 寒血爲積 久服明目 輕身延年 一名菟蘆 一名菟縷 一名菟蒙 一名玉女 一名赤綱 一名菟纍(音羸) 生朝鮮川澤田野 蔓延草木之上 色黃而細爲赤綱 色淺而大爲菟纍 九月採實 暴乾”(南天書局 影印本, 151-2쪽, 이하 인용문의 전거는 이와 동일함). 굵은 글씨는 『본초경』의 것을 인용한 것이다.

5)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 권22, 蟲魚部 下品, “馬陸 味辛溫, 有毒 主腹中大堅症, 破積聚 息肉惡瘡白禿 療寒熱痞結, 脅下滿 一名百足 一名馬軸 生玄菟川谷”(앞 책, 452쪽,)

불에 충분히 익히지 못하면 반드시 다시 재련해야 한다. 고구려나 부남(扶南) 서역(西域) 등 외국에서는 모두 그릇을 만들어 재련하므로 복용할 수 있다.”⁶⁾ 【정신을 진정시키고 혼백을 안정케 하며 마음을 안정하고 5장을 보하며 정을 보태 주고 골수를 보한다. 또 5장의 풍간(風癩)으로 정신을 잃은 것과 어린이의 놀라는 증을 낮게 한다.】

② 세신(細辛) : 도은거가 이르기를, “지금 동양(東陽)과 임해(臨海)의 것이 형태가 단단하고 좋지만, 매운 맛이 강하기로는 화음(華陰)이나 고구려의 것만 못하다. 이를 사용할 때는 대가리를 따 버린다. 입에서 냄새가 나서 고민인 사람이 이를 머금으면 효과를 많이 본다.”⁷⁾ 【추위를 몰아내고, 안으로는 속이차서 생긴 담을 없애며, 막힌 것을 뚫어주는 작용과 오장을 편하게 하고, 담낭을 튼튼하게 하며, 눈이 밝아지고, 가래와 기침을 가라앉히며, 몸과 폐를 따뜻하게 하고, 통증을 없애는데 쓰이며, 풍한으로 인한 편두통, 정두통의 치료하고, 특히 입냄새(구취)에 아주 좋음.】

③ 오미자(五味子) : 도은거가 이르기를, “지금 고구려에서 나는 것이 제일이니, 살이 많고 새콤달콤하다. 다음은 청주와 기주에서 나는 것인데 많이 시고 그 씨는 모두 돼지콩팥과 비슷하게 생겼다. 또 건평(建平)에서 나는 것도 있는데, 살은 적고 씨앗은 고구려의 것과 닮지 않았고 맛은 쓰다.”⁸⁾ 【땀이 많거나 설사가 있을 때 멈추게 하고 유정이나 소변이 새는 것에 좋음.】

④ 곤포(昆布) : 도은거가 이르기를, “지금 오직 고구려에서만 난다. 노끈으로 한 움큼씩 묶어놓아 마치 삼베를 말아놓은 것 같다. 황흑색으로 부드러워서 먹을 수 있다.”⁹⁾

⑤ 관동화(款冬花) : 도은거가 이르기를, “제일 좋은 것은 河北에서 난다. 형태가 퍼지지 않은 것이 좋은데, 그 속에 실 같은 것이 있다. 다음으로는 고구려와 백제의 것이 좋은데, 꽃이 큰 국화꽃과 비슷하다.”¹⁰⁾ 【담을 삭이며 기침을 멎게 하고 폐위(肺痿)와 폐옹(肺癰)으로 피고름을 뱉는 것을 낮게 하며 번열을 없애며 허로를 보하는데 좋음.】

⑥ 여여(蘭茹) : 도은거가 이르기를, “지금 제일 좋은 것은 고구려에서 난다. 색은 노랗고, 짜면 즙이 나오는데 옷처럼 까매서 칠두(漆頭)라고도 한다.”¹¹⁾ 【부종을 가라앉히며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을 도우며 기운을 회복하는 데 좋음.】

⑦ 백부자(白附子) : 도은거가 이르기를, “이 약물은 곧 출예예를 말하는데 오래도록

6) 앞 책, 109쪽.

7) 앞 책, 164쪽.

8) 앞 책, 185쪽.

9) 앞 책, 222쪽. 『본초경』에 없는 것으로 보아 남북조 시대에 알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10) 앞 책, 226쪽.

11) 앞 책, 276쪽.

없어졌다. 세간에 진품을 복구하지 못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서 헌납하기에 사용한다”고 하였고, 당본주에 이르기를, “이 약물은 본래 고구려에서만 나온다. 지금 서쪽의 주에서 나오는데 모습이 천웅과 비슷하다”¹²⁾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을 도우며 기운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⑧ 무이(蕪蕒) : 도은거가 이르기를, “지금 오직 고구려에서만 나는데 모양은 느릅나무 열매와 닮았고 기운과 냄새는 신피와 비슷하다. 사람들이 모두 장을 만들어서 먹는데, 벌레를 죽이는 성질이 있어서 물건 가운데 두면 벌레 먹는 것을 방지하나 냄새가 고약하다.”¹³⁾ 【장풍, 치루, 악창, 옴과 버짐 등을 낮게 하며 3층을 죽인다.】

⑨ 오공(蜈蚣) : 지금 다리가 붉은 것은 고구려 산중에 풀이 썩어서 쌓인 것에 많이 난다. 이것을 잡아서 상하지 않도록 벌레 바싹 말린다. 다리가 노란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¹⁴⁾ 【귀주(鬼疰), 고독(蠱毒), 사매(邪魅)와 뱀독을 치료하고 헛것을 없애며 3층(三蟲)을 죽이고 온학과 명치 아래와 배에 뭉친 징벽(徵辟)을 낮게 하고 유산시키며 굳은 피(惡血)를 나가게 한다.】

(3) 백제

① 인삼 : 도은거가 말하기를, “상당군은 기주(冀州) 서남쪽에 있으니 지금의 위나라이다. 바친 바 그 (인삼의) 형상은 길고 누런색이니 방풍과 같이 윤기가 많으며 달아 속용(俗用)으로는 복용하지 않는다. 이에 백제의 것을 중히 여기는데, 가늘고 단단하며 희다. 기운과 맛은 상당의 인삼보다 못하다. 다음으로 고려의 것을 쓰는데, 고려는 바로 요동의 것으로 형태가 크고 속이 성기고 부드러운지라, 백제의 인삼만 못하다. 백제는 지금 고구려에 臣屬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바치는 것은 두 종류를 겸하고 있으니 취사선택할 뿐이다. 실제 사용하는데 있어 둘 다 상당 지역의 인삼만 못하다.”고 하였다.¹⁵⁾ 【오장의 기가 부족한 데 주로 쓴다.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심규(心竅)를 열어주고 기억력을 좋게 한다. 허손된 것을 보하고 곱관으로 토하고 딸꾹질하는 것을 멎게 하며, 폐위(肺痿)로 고름을 뱉는 증상을 치료하며 담(痰)을 삭인다.】

② 관동화 : 위의 고구려와 같음

(4) 신라

① 해조(바닷말) : 《진장기본초》에 이르기를 ... 대엽조(大葉藻)는 깊은 바다와 신라에

12) 앞 책, 279쪽.

13) 앞 책, 322쪽.

14) 앞 책, 447쪽.

15) 앞 책, 102쪽.

서 나오는데, 잎이 수조(水藻)와 같이 크다. 16) **【염증의 완화에 좋음】**

② 곤포(다시마) : 《진장기본초》에 이르기를 ... 신라에서 나는데, 황흑색이고 잎이 가늘다. 《해약(海藥)》에서 이르기를 ... 신라에서 나는 것은 황흑색이며 잎이 가늘다. 17) **【수종(水腫), 기가 쌓인 것과 염증 치료에 좋다】**

③ 백부자 : 《해약》에서 이르기를 ... 동해 또는 신라국에서 난다. 18)

④ 담라(擔羅) : 열기가 사라지는 것을 주로 한다. 곤포와 섞어 국으로 먹으면 기가 물려 몽친다. 신라에서 나는 조개 종류로 신라 사람들이 먹는다. 19)

⑤ 개암나무 열매 [榛子] : **【위를 튼튼하게 하고 입맛을 돋우며 눈을 밝게 하고 기를 보한다. 병이 나은 뒤나 입맛이 부진한 데 쓴다.】**

⑥ 잣 [海松子] : **【기(氣)와 심폐(心肺)를 보하고 풍사(風邪)를 몰아내며 대소변이 잘 통하게 한다. 또한 영양 작용과 항동맥경화 작용을 나타낸다. 몸이 허약한 데, 마른기침, 허약자의 변비, 풍사의 침입으로 여기저기 아픈 데 쓴다.】**

⑦ 가지 [茄子] : **【열을 내리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통증을 멎게 하고 부기를 가라앉힌다.】**

위의 약물 이외에도 일본에 수출한 약물로서 우황, 남등근, 토과(土瓜), 박하(薄荷), 형개(荊芥), 국(菊), 해석류(海石榴), 해홍화(海紅花), 석발(石髮), 도(桃), 울눌제(膈膈臍), 위령선(威靈仙), 신라양지(新羅洋脂) 등이 있다.

3. 한국의학사 속의 신라 의학 : 한국 중세 의학의 탄생

앞 장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라산 약재는 중국 본초서에 가장 늦게 소개되었다.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늦었기 때문에 중국내 신라산 약재에 대한 이해가 늦었다. 그러나 신라는 삼국 통일을 통해 고구려 백제 신라산 특산 약재를 신라산으로 통일하였다. 이에 신라산 또는 해동산이라고 표기되었다.

신라는 통일 이후 중국 당의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의료 체계와 의학 체계를 중국 당나라식으로 전환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 최초의 의과대학이라고 할 수

16) 앞 책, 221쪽.

17) 앞 책, 222쪽.

18) 앞 책, 279쪽. 고구려의 백부자와 같다.

19) 앞 책, 287쪽.

있는 의학의 설립이다. 692년 신라는 의학을 설립하여 중국 당나라 의학에서 사용하는 교육체제에 따라 의료 관료를 양성하였다. 당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의과 대학의 교육과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표> 신라·당·일본의 교과내용 비교

	교육 과목	
신라	본초경, 갑을경, 소문경, 침경, 맥경, 명당경, 난경	
당	공통	본초, 맥결, 명당(1년차) / 소문, 황제침경, 갑을, 맥경(2년차)
	의생	張仲景, 소품방, 집험방 등
	침생	유주도, 언측도 등, 적오신침경
일본	본초, 갑을, 소문, 황제침경, 맥경, 명당, 맥결, 소품방, 집험방, 유주도, 언측도, 적오신침경	

신라 ‘의학’ 출신의 어의들이 구사하였던 처방들은 모두 본초서에 입각한 것이었다. 당나라 의질령을 수용하여 구축하고자 하였던 신라 통일기의 의학과 의료 체계의 지향점은 이전의 고대 의학과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세계였다. 즉 한국 중세의학이 탄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① 의학 발전을 주도한 강력한 중대 왕권

중대 왕권은 ‘의학’을 통해 고급 의료 인력을 독점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중국식 의학을 습득한 관의(官醫)를 의료 정책을 담당할 중심인물로 보유하게 되었다. 제반 의료정책은 국가 율령체제에 의거한 의질령을 근간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 권력은 종래 주술적이거나 경험적인 처방에 의지하던 신라 의학을 중국식 의학체제로 전환시켰으며, 이는 국가 권력에 의해 우주와 신체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시기 이룩된 관의 중심의 신라 공적 의료체계는 지배층 위주의 제한된 소수를 위해 존재하는 한국 중세의료체제의 원형으로서, 의료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국왕이 이를 매개로 신민(臣民)을 지배하는 기재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 중세 의학의 특징은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강력한 중앙 권력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점이 그 특징이다. 물론 이는 동아시아 의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하다. 강력한 세계제국을 이루었던 당(唐)에서 중세 의학의 전범이 형성되었고, 이를 수용한 통일기 신라의 전제왕권과 8세기 율령국가 하의 일본 모두 의학은 중요한 통치 기재로 작용하였다.

② 중앙 권력의 표준화 정책에 따른 보편성과 호환성 획득

중국 의학 교재를 채택함에 따라 의학 지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동아시아

의학세계에서 신라 의학이 보편성과 호환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중국 의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이전 한반도에는 고유한 의학이 존재하였다. 고구려의 ‘노사방(老師方)’, 백제의 신집방(新集方), 신라의 법사방(法師方) 등은 이러한 고유 의학을 토대로 중국 의학과 의 일정한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의학서였을 것이다. 고구려 『노사방』의 경우, 동해에 흔한 다시마를 주재료로 한 처방이었다. 이러한 처방이 중국내에 유입되어 변용과정을 거쳐 중국 의학으로 탈바꿈되었다. 984년에 편찬된 일본 의학서 『의심방(醫心方)』에 인용된 『신라법사방』의 노봉방(露蜂房) 역시 말벌 집을 정력 강장제로 쓰는 처방으로서, 중국 의학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당나라 정원(貞元:785-805)연간에 상주에 사는 앓은뱅이 환자를 고친 신라 유학승은 위령선(威靈仙)이라는 중국식 약물명을 알지도 못하고 오직 신라식 향명만이 알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약물의 명칭이 중국과 호환성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압지 약물명 목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 의학은 동아시아 내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약재명과 질병명 그리고 중량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의학과 막바로 호환될 수 있었다.

③ 의료전문관료의 다양화와 지위 상승

한국에 서양의학이 수용되면서, 신기술을 구사하는 서양의학 전공의는 그 신분이 기존의 의원이나 의생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신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5세기 일본 윤공제의 다리병을 고친 신라 의사 김무는 파진찬이라는 관등을 가진 귀족으로서 실성왕의 근신이었다. 이처럼 아주 극소수의 귀족들이 고구려를 통해 중국식 의학을 이해하고 국왕을 비롯한 귀족의 질병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무의나 승의 등을 통해 주술적이거나 상징적인 처방에 의존하거나, 최근 부여 집자리터에서 발견된 현초처럼 경험에 의지한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의 의료 담당자는 그 사회적 지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진흥왕이 재위 29년인 568년에 함경도 지방을 순수하면서 세운 4개 순수비(巡狩碑) 가운데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에 나타난 ‘약사(藥師)’라는 관직명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들 양 비문에 나오는 ‘약사’는 국왕의 근시집단 중의 한 명으로 후대 공봉의사(供奉醫師)에 비정되고 있다. 진흥왕을 가까이 모시는 유일한 의료관료로서 지방의 순행을 시종할 정도라면, 당시 의료직 중에서 경륜과 직책이 가장 높은 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에 기재된 인물 가운데 점인(占人)과 약사(藥師)가 있다. 말을 다루는 익인(駙人)과 점인의 관등이 대사(大舍:17관등 중 제12위)인 데 비해, 약사는 소사(小舍:제13위)였다. 즉 중고기 국왕의 근시 집단에서 의료 관료는 국왕의 어가를 주관하는 익인이나 길흉을 점치는 점인보다 낮은 지위였다.

그런데 통일 후 설치된 ‘의학’에서는 의박사와 침박사가 의침생들을 지도하였다. 통일 후 신라 관료사회에서 박사의 관등은 대개나마 또는 대나마급이었다.²⁰⁾ 신라 통일기 의학에 관한 제반업무를 전담하였던 기구는 약전(藥典)이었다. 해당 관원은 사지(舍知) 2

20) 박남수, 「신라 궁중수공업의 성립과 정비」 『동국사학』 26, , 1992 참조.

인과 사(史) 6인, 종사지(從舍知) 2인으로 비교적 하급관료로 구성되어 있다. 사지는 신라 17관등 중 13위에 해당하는 관등명으로서 관직명에도 사용되었는데, 경덕왕 18년에 원외랑으로 개칭되었다.

이렇게 볼 때, 신라 중고기 국왕의 순행을 근시(近侍)하였던 의료직은 17관등 중 13위에 해당하는 소사(小舍)에 불과하였는데, 중대에 들어 그 직임이 다양하게 분화됨과 동시에 신분이 상승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고기에 비해 다양하게 분화된 이들 의료 관료의 신분에 관해 일률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중대에 이르러 의료 관료의 신분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하겠다. 이처럼 의료관료의 지위가 중고기에 비해 상승하게 된 원인은 이들이 중국식 의학을 배운 신지식 보유자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④ 고부가가치 의약산업의 탄생

8세기 한중일 삼국은 의질령에 입각하여 동일한 교과서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의사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이 『본초경』이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의학교육에서 본초학은 중시되었다. 한중일 삼국이 약물명과 질병명, 그리고 중량 단위를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 즉 보편성과 호환성을 가진 동아시아 의약 세계가 등장함에 따라, 약재무역으로 대표되는 국제적인 의료시장 역시 더욱 활발해졌다.

통일 후 신라는 특산물인 금과 우황, 잣 등 약물 뿐 아니라 중국과 서역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뒤 약전에서 완성약을 만들어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형식의 중계 무역을 행하였다. 약재 뿐 아니라 완성약의 판매는 신라가 고부가가치 의약산업을 발달시켰음을 의미한다. 신라 말 최치원은 양주(楊州)에서 신라산 인삼과 천마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 말에도 인삼을 위시한 신라산 약재 교역이 번성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신라사대계』(1~30권), 2016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66
미키 사카에(三木榮), 『朝鮮醫學史及唐疾病史』, 大坂:自家出版, 1962
여인석 외, 『한국의학사』, 의료정책연구소, 2012
젊은역사학자모임, 『사이비역사와 한국고대사』, 역사비평사, 2017
한국고대사학회, 『우리시대의 한국고대사 1·2』, 주류성, 2017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고대사산책』, 역사비평사, 2016
윤선태,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2005
이현숙, 「몸·질병·권력: 7세기 신라통일전쟁기의 군진의학」 『역사와 문화』 6, 2003
이현숙, 「한국 중세의학의 기점」 『한국고대사탐구』 10, 2012
이현숙, 「고구려의 의약 교류」 『한국고대사연구』 68, 2013
이현숙, 「한국고대의사의 지위변화」 『연세의사학』 제17권 1호, 2014
최재석, 「日本 正倉院 소장 한약재를 통해 본 統一新羅와 日本과의 관계」 『民族文化研究』 26, 1993

※ 참고자료 열람

1.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총 30권) 인터넷 열람 주소(e-book)

▶ http://www.gb.go.kr/open_silguk/silla_history/main.do ◀

2. 강의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시민강좌)

▶ <http://www.koreaancienthistory.net> ◀

<MEMO>

-----<절취선>-----

2017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강좌 <시민 참여> 질문지

*강의 내용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질문지는 강사의 강의를 끝난 다음, 중간 휴식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